

50번째, 농기구이야기

물건을 나르는 도구

‘옹구’



(옹구 © 농업박물관)

- 편집 및 발행 :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
- 발행일 : 2012.5.
-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,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.

1. 용도

옹구는 길마 위에 얹어 각종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이다. 주로 두엄이나 거름 등을 논밭에 옮길 때 사용하며, 수확한 농작물을 실어 나를 때도 이용된다. 담은 물건을 내릴 때에는 자루망 아랫부분을 열어서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.

또한 타작이 끝난 곡식을 섬에 담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, 한번에 120~140kg의 짐을 실을 수 있어서 많은 양의 곡식이나 두엄 등을 운반하기에는 적합하다. 마차와 달리 좁은 길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.



(현대의 옹구사용 모습 ©한국학중앙연구원)

2. 명칭의 유래

'옹구'가 확인되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우선 『천일록(千一錄)』¹⁾에서 '옹고(擁苦)', 『농가월령가(農家月令歌)』²⁾와 『월여농가(月餘農歌)』에서는 '망구'라 확인된다. 농가월령가(農家月令歌)는 조선 헌종 때 학자인 정학유(丁學游 : 1786~1855)가 1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으로 가사로 전달한 책이다. 이 중 8월령에 다음과 같이 '망구'가 옹구의 옛말로 확인된다.

…안팎마당 닥가노코 발채**망구** 장만하고… - 농가월령가 8월령 중 -

또한 월여농가(月餘農歌)는 조선 철종 때 김형수(金迥洙)가 역저한 월령식 농가로

- 1) 수원의 유행으로 평생을 보낸 농촌 지식인으로 18세기 말 사회 상황의 폐단 근원과 그 해결책을 농업 중심으로 모색하였다.
- 2) 월령체의 장편가사로, 1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을 상세히 가사로 전달하고 있고, 당시 미덕의 세목을 엮을 수 있다.

정학유의 농가월령가를 한역한 것으로 보인다. 마찬가지로 8월령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고, 주석으로 궤취(簍觜)라는 것이 '망구' 곧 망태의 종류라 기술하고 있다.

…염체 궤취 역판성(簍體簍觜亦辦成)… - 월여농가 8월령 중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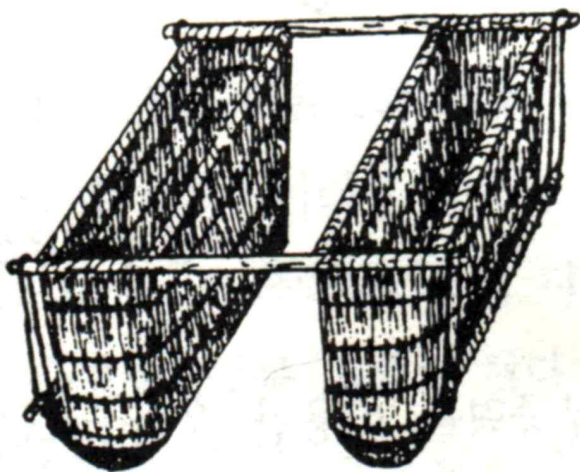
이렇듯 기록에 따라 옹구는 옹고 또는 망구로 명칭이 달리 불렸고, 지방에 따라 원구(경기 반월), 온구(경기 덕적, 반월), 옹기(충북 봉양, 경북 울진)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.

3.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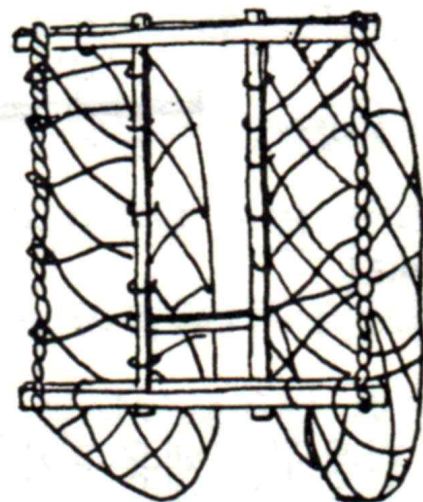
옹구는 보통 길마 위에 얹어 사용하는 도구로 걸채와 같은 나무틀에 새끼로 짠 자루망을 달고 자루 밑을 뚫어 실은 짐을 쉽게 쏟을 수 있게 되어 있다.

크게 두 가지 형태가 확인되는데, 첫 번째로 11자 모양의 나무틀 양 안쪽에서 새끼로 위가 넓고 아래가 처지게 망태처럼 엮어 내려간다. 이때 안쪽 면을 바깥쪽 면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말리게 한다. 짐을 실을 때 막대로 사이를 질러 두었다가 막대를 빼면 물건이 아래로 쏟아지도록 되어 있다.

두 번째로 새끼를 짜지 않고 밀이 없는 가마니 두 짝을 댄다. 물건을 운반할 때는 자루밑 부분을 모아서 매거나, 널판 같은 것을 넣어 받침으로 삼기도 한다.



(옹구 ©박호석, 1990)



(옹구 ©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, 1905)

4. 그림 속에 보이는 옹구

아래 그림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경직도(耕織圖)로 소가 옹구를 이용해 짐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옹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루망 끝부분이 긴 막대로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밑부분을 모아서 묶은 형태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.



(경직도 ©국립민속박물관, 조선 후기)



(경직도 ©국립민속박물관, 조선 후기)

【참고문헌】

국립국어원,

김광언, 1969, 『한국의 농기구』, 문화재관리국

한국농업기계학회, 2001, 『한국농기구도감』

배영동, 2002, 『농경생활의 문화읽기』, 민속원

김지용.김미란 공저, 2008, 『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 시』, 명문당

농촌진흥청 편역, 2009, 『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: 1905. 4, 경기도, 충청도, 강원도』

농촌진흥청 편역, 2009, 『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: 1905. 5, 경상도, 전라도』